

탕아(蕩兒)의 귀환, 어떻게 봐야 하나

정승재 (02)3774-6031 / aries770322@miraeasset.com

대의 변수 영향력 확대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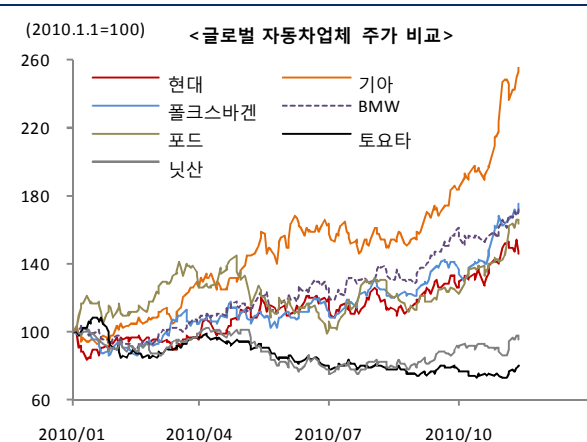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중국, 유럽에서 들려오는 악재 탓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외 악재 때문에 외국인 유동성 이탈, 지수 되돌림을 걱정하긴 이르다고 본다. 아일랜드 구제금융 설로 유럽 재정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으나, 4~5월과 달리 서유럽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 상승세는 제한적이다. 이는 달러화 약세 방향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적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준다. 중국 금리인상 재료 역시 달러화 방향성 측면에서 접근하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지난 주말 전격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기초적 인상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신흥국 통화 강세-미국 달러화 약세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아온 탕아(蕩兒) GM, 부담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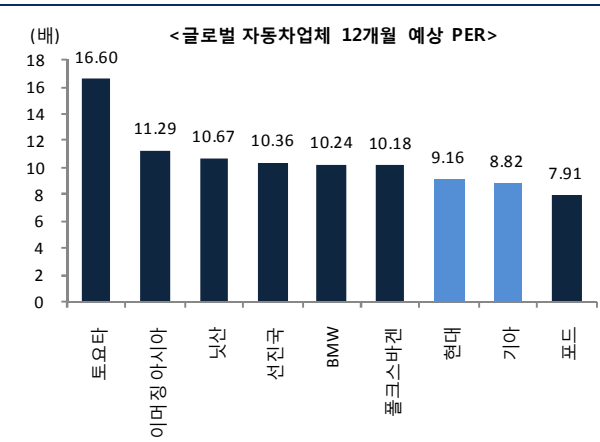
대형 IT주 강세 덕분에 지수가 강보합으로 체면치레는 했으나 자동차 관련주는 내림세를 지속 이어가고 있다. 후자와 관련해 주목할 변수로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 GM의 재상장(18일)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GM의 재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자동차 업종 편입 비중 조절이 일어나며 국내 자동차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간 국내 자동차 관련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보면 막연한 우려는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 자동차들의 주가만 유독 많이 오른 것은

[그림 1] 국내 자동차업체 주가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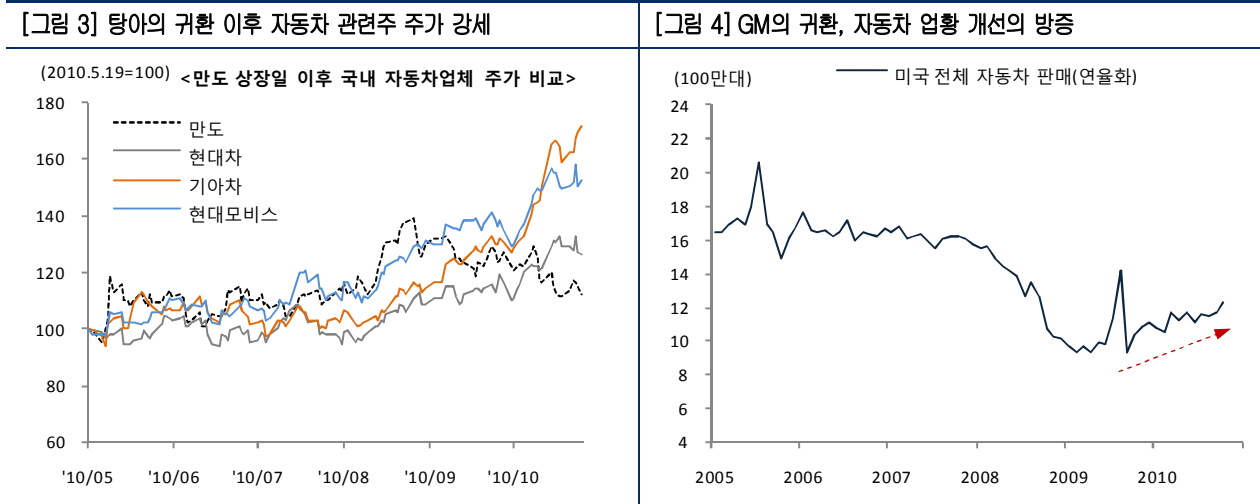


[그림 2] 이익개선 바탕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 높아



주: 그림 2에서 선진국과 이머징 아시아는 MSCI 해당 지역 자동차업종지수 12개월 예상 PER 기준
자료: IBES, DataStream,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리서치

아니다. 기아차 주가는 연초 이후 150% 가량 오르며 상승세가 눈에 띄나 현대차는 독일 폴크스바겐이나 BMW, 미국 포드에 비하면 언더퍼폼하고 있다. 오히려 이익전망치 개선을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갖추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현대차, 기아차의 12개월 예상 PER은 각각 9.16배와 8.82배로 글로벌 경쟁업체들의 PER(토요타 16.6배, 닛산 10.67배, BMW 10.24배, 폴크스바겐 10.18배)이나 선진국과 이머징 시장 자동차업체들의 평균 PER(각각 10.36배, 11.29배)에 비해 낮다.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리서치

GM 재상장처럼 글로벌 경쟁업체의 상장 케이스는 아니지만 국내 증시에서 만도 재상장 이후 자동차관련주의 주가 흐름도 눈 여겨 볼 만 하다. 그림 3은 지난 5월 만도의 재상장을 기점으로 국내 자동차 관련 대표주들의 주가를 비교한 것이다. 만도 재상장 직후 완성 자동차업체들의 주가는 주춤했다. 하지만 시기상 유럽발 재정 리스크가 증첩되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중기적으로는 정상 궤도에 복귀하며 기존의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같은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는 조정 기간이 더 짧았고 현재 만도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경쟁사의 상장으로 편입 비중 조절이 일어나며 기존 업체들의 주가가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관련주 주가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큰 그림으로 보면 탕아의 귀환은 곧 경기 회복, 업황 개선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지수 되돌림 과도한 우려는 경계하라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 지지에는 실패했으나 과도한 되돌림에 대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기관 매물로 지수가 방향성을 잃었지만 외국인이 흔들리지 않고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러하다. 여기에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주택, 소비 관련 경제지표는 전월 대비 개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중국과 유럽발 악재를 상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GM 재상장 이슈 역시 글로벌 자금의 비중 조절에 따른 수급 악화 측면보다는 경기 회복, 자동차 업황 개선이라는 큰 그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해외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IT, 자동차 및 관련 부품주에 대해 관심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조사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자산운용리서치팀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과거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